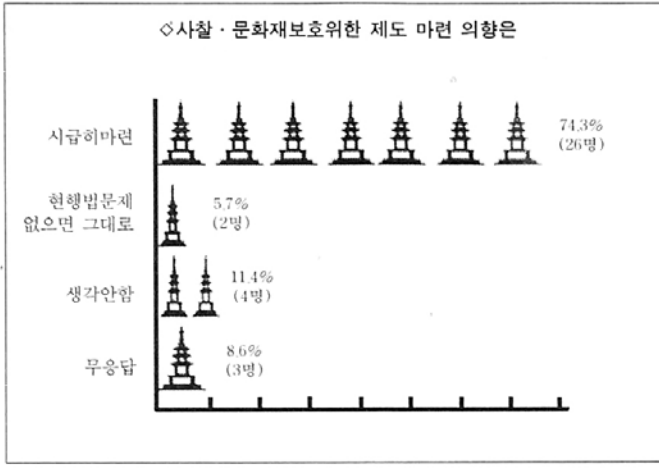


# “교계-정각회 유대 필요” 65.7%

### 현대불교신문사 · 한국불교문화원 공동조사

국회정각회 소속 불자의원들은 가야산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 등 불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긍정성을 보인 반면 '불교관계법 개정' '교계 숙원사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 등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본사가 창간2주년을 맞아 한국불교문화원과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불자의원 35명 가운데 74.3%(26명)가 불교계 숙원사업에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안을 참작하여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꼭 참여하여 풀겠다(17.1% 6명)와 좀더 생각해 보겠다(5.7% 2명)는 대답과 상당한 거리를 보인 것으로 불자의원들의 신중론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같은 신중론은 불교관계법 개정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불교관계법 개정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



조금 많아 정치와 종교의 분리된 의식을 보여 주기도 했다.

10년이상 불교를 신봉해 온 의원은 33명(94.3%)이었으며 5년이하라 답한 의원은 2명이었다. 본지가 95년 신년특집(본지 12호)으로 14대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년이상 신봉하고 있다는 답이 80%를 넘어선 것과 비교할 때 불자의원들의 신봉행수가 상당히 길다는 결론을 보이고 있다.

### “신행동기 집안영향” 71%

10년이상 신행활동을 해 온 불자의원들 가운데 5계를 받은 의원은 9명(27.3%)이었고 보살계를 받았다는 의원도 4명(12.3%)이 있었다. 곧 받을 예정이라 답한 의원은 10명(31%)인데 비해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답도 9명(27.3%)이나 있어 정각회 활동 가운데 수계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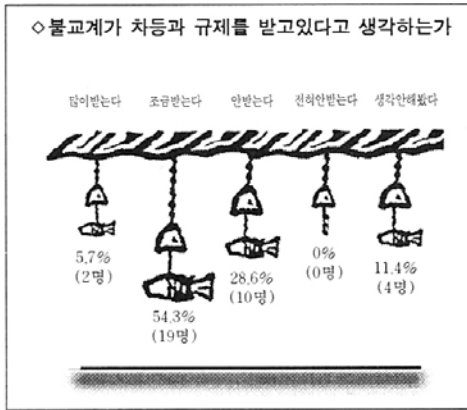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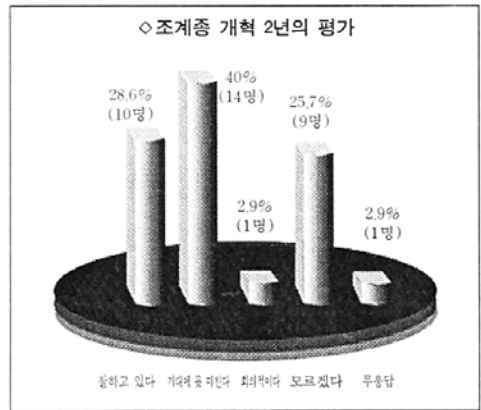
불자의원들의 신행동기는 부모님과 집안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25명, 71.4%) 상당히 타율적 현상을 보였다. 학생회나 청년회 등 신행단체 참여로 인연 맺은 의원도 4명(11.4%)이 있었으며 아내의 권유로 불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

## 불교관계법 개정 신중 86.6%... “재적사찰있다” 20%

### 당면 과제 ‘수행풍토 확립’ ‘사회참여’ ‘신도조직 활성화’ 順

해 66.6%(24명)의 의원이 문제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개정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 이 역시 즉각 개정을 주장한 의원(5.7% 2명)과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의원(5.7% 2명)보다 압도적이었다.

자신이 국회위원에 당선된 것과 관련 부처님의 가피가 컸다는데는 많은 의원이 공감했다. 68%(23명)의 의원이 가피가 컸다고 답했으며 다소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의원 23%(8명)과 합하면 88%의 불자의원들이 당선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차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이들 의원들 가운데 불교계 숙원 사업과 관계법 개정 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내세운 의원은 똑같이 68.6%(16명)이었다.



불자의원들은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계가 차등이나 규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 의원들의 답은 차등이나 규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 질문에 대해 많이 받고있다는 답은 5.7%(2명)이었으나 조금 받고 있다는 대답은 54.3%(19명)이나 됐다.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응답을 피한 의원은 4명(11.4%)이었다. 이는 불교계와 정각회간의 긴밀한 유대가 형성되면 불교계 권익 보호를 위한 불자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고무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불자의원들은 불교신도와 스님들의 정치 관심도를 그다지 높게 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불교신도들의 정치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의원들은 보통이다(37.1%)와 적다(23% 8명)는 의견을 각각 보였다. 스님들의 정치관심도에 대해서도 많다고 생각한 의원은 28.6%(10명)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51.4%(1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교계인사 통해 정보수집

자신이 불자라는 사실이 지역구 관리에 대체로 도움을 준다는 대답이 19명(54.3%)에게서 나온 한편 지역구의 종교인을 분석해 정책에 활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45.7% 16명)는 대답보다는 그렇지 않다(54.3% 19명)는 답이

의원들은 재적사찰을 두고 신행활동을 하는 경우(7명, 20%)보다는 사찰에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신행생활을 하는 경우(14명, 40%)가 많았다.

조계종 개혁2년을 바라보는 의원들의 입장은 잘하고 있다(28.6%, 10명) 보다 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대답이 많았다. (40%, 14명) 의원들은 불교계 현안과 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으로 수행풍토 확립, 대사회 참여확대, 신도조직활성, 불교관계법 개정을 꼽았다.

불자의원들은 또 불교계에 대해 △불교자체 정화를 통한 국민적 신뢰 △사체 개혁 △국민계도에 앞장설 수 있는 자세 확립 △분쟁 종식 △포교 강화등의 개인적 주제를 하기도 했다.

임연태 기자

협찬 梵鐘社 (02)735-1045

국회정각회 의원 신행동기 설문조사

- 불교의 인연을 맺으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① 1년미만(0%) ② 5년이하(5.7%) ③ 5년이상(0%) ④ 10년이상(94.3%)
- 어떻게 불교의 인연을 맺으셨습니까?  
① 부모님과 집안이 불교이므로(71.4%) ② 배우자의 권유로(8.6%) ③ 본인이 학생회나 청년회 등 신행단체 참여로(11.4%) ④ 아내의 스님과의 인연으로(8.6%) ⑤ 불교서적을 읽고 발심하여(0%)
- 수계를 받으셨습니까?  
① 오계를 받았다(25.7%) ② 보살계를 받았다(11.4%) ③ 기회가 있으면 곧 받을 예정이다(34.3%) ④ 생각해 보지 못했다(25.7%) ⑤ 무응답 2.9%(1명)
- 신행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①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20%) ② 사찰에 가서 기도한다(40%) ③ 가정에서 향선, 기도, 불교서적 읽기(22.9%) ④ 신행의 기회가 적다(17.1%)
- 집에 가시면 꼭 사주를 하십니까?  
① 갈때마다 한다(77.1%) ② 자주 한다(5.7%) ③ 가끔한다(17.1%) ④ 삼을 사주고 촛불 밝힌후 절만 한다(0%)
- 이런 15대 국회의원이 되신 것이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피가 컸다(65.7%) ② 다소 있었다고 생각한다(22.9%) ③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0%) ④ 생각해 보지 못했다(11.4%)
- 15대 국회 불자의원은 7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각회 의원은 49명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신행활동은 자유이므로 선택에 맡겨 놓아야 한다(54.3%) ② 대역을 세워 회원으로 영입해야 한다(14.3%) ③ 정각회 이미지를 고양시켜 가입회원이 늘어나도록 해야(20%) ④ 앞으로 대를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11.4%)
- 불교계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세히 알고 있다(31.4%) ② 보통이다(25.7%) ③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 알고있다(40%) ④ 거의 모르고 있다(2.9%)
- 불교계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알고 계십니까?  
① 업무 담당자에게 보고를 받고있다(0%) ② 현 본회의 스님이나 불교계인사를 통해(68.6%) ③ 불교계 신문 방송을 통해(14.3%) ④ 부인이나 어머니를 가족을 통해(8.6%) ⑤ 무응답 8.6%(3명)
- 불교계 신문이나 방송을 접하실 기회가 있으십니까?  
① 자주 접한다(37.1%) ② 보통이다(31.4%) ③ 잘 접하지 못한다(28.6%) ④ 전혀 접하지 못한다(2.9%)
- 불교계 현안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순서로 1, 2, 3번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순위)  
① 불교관계법 개정(49%) ② 신도조직 활성화(37%) ③ 수행풍토 확립(19%) ④ 개성에 따른 사찰환경 개선(5%) ⑤ 대사회 참여확대(2%)
- 불교계의 숙원사업에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하십니까?  
① 꼭 참여하여 풀도록 하겠다(17.1%) ② 사안을 참작하여 대응하겠다(74.3%) ③ 불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하겠다(0%) ④ 좀더 생각해 보겠다(5.7%) ⑤ 무응답 2.9%(1명)
- 고속철도의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8.6%) ② 반대한다(40%) ③ 현재 추진되는 있는 우회노선을 지지한다(45.7%) ④ 생각해 보지 못했다(5.7%)
- 불교관계법 개정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꼭 개정되어야 한다(5.7%) ② 문제점을 검토 점진적으로 개정(68.6%) ③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검토하겠다(5.7%) ④ 생각해 보지 못했다(14.3%) ⑤ 무응답 5.7%(2명)
- 가이신 국민권익위원회 불교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환경 및 문화재 보존에 문제점이 많으니 건설하지 않아야 한다(60%) ②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건립하고 생각한다(11.4%) ③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20%) ④ 무응답 8.6%(3명)
-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골프장·이파도·대형 빌딩 건설등으로 직장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와 사찰의 수행기능의 저하가 여견되는데 ‘수행풍토확립’ 등의 사찰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① 사찰의 법적 지위가 마련되어야 한다(74.3%) ② 현행법상 하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5.7%) ③ 생각해 보지 못했다(11.4%) ④ 무응답 8.6%(3명)
- 재정시와 불교현안 사업에 참여하셨던 이 사실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홍보하실 것입니까?  
① 적극 홍보하겠다(37.1%) ② 사안을 봐서 홍보 하겠다(54.3%) ③ 홍보할 생각이 없다(5.7%) ④ 무응답 2.9%(1명)
- 불교계의 현안이 사회문제화 되면 어떻게 하 시겠습니까?  
① 즉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71.4%) ② 급히 신청은 쓰지 않지만 관심은 갖는다(22.9%) ③ 별로 중요치 않으니 좀더 버린다(0%) ④ 생각해 보지 못했다(5.7%)
- 불교계가 대사회적 활동을 벌이는데 있어 어떤 분야에 우선 관심을 기울이고 보십니까. (순서로 1, 2, 3번까지 표시해 주십시오. 순위)  
① 환경(49%) ② 인권(69%) ③ 통일(79%) ④ 경제정의(91%) ⑤ 지역사회 기여(29%) ⑥ 복지(59%) ⑦ 도덕성(19%) ⑧ 교육(39%) ⑨ 기타
- 불교신도들의 정치관심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많다(8.6%) ② 많다(25.7%) ③ 보통이다(37.1%) ④ 적다(22.9%) ⑤ 전혀 없다(2.9%) ⑥ 생각해 보지 못했다(11.4%)
- 스님들의 정치관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많다(2.9%) ② 많다(28.6%) ③ 보통이다(51.4%) ④ 적다(11.4%) ⑤ 전혀 없다(2.9%) ⑥ 생각해 보지 못했다(2.9%)
- ‘불자’라는 사실이 지역구 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11.4%) ② 대체로(11.4%)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54.3%) ④ 그저 그렇다(20%) ⑤ 도움이 안된다(14.3%)
- 지역구의 종교인을 분석, 정책에 활용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45.7%) ② 그렇지 않다(54.3%)
- 지역 스님들과 대화 시간을 갖습니까?  
① 자주 갖는다(22.9%) ② 가끔 갖는다(57.1%) ③ 갖지 못한다(17.1%) ④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2.9%)
- 조계종이 개혁의 가치를 내세우지 않으면 지역구 관리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잘하고 있다(28.6%) ②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40%) ③ 회의적이다(2.9%) ④ 모르겠다(25.7%) ⑤ 무응답 2.9%(1명)
- 정각회를 위해 불교계가 해 주기를 바라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① 재정적 후원(11.4%) ② 불교관련 정보 제공(65.7%) ③ 불자위원 초청 강연회(2.9%) ④ 불교리 교육(14.3%) ⑤ 기타(5.7%)
- 15대 국회가 2세기를 여는 국회라는 점에서 가장 신행해야 할 국정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성전국을 위한 준비(22.9%) ② 통일을 위한 준비(22.9%) ③ 환경,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준비(51.4%) ④ 기타(2.9%)
- 현재 불교계의 사회의 국가를 위한 참여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대로만 좋다(28.6%) ② 부처님이나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60%) ③ 너무 지나치게 참여하는 것 같다(2.9%) ④ 생각해 보지 못했다(5.7%) ⑤ 무응답 2.9%(1명)
- 사회제안 문제 해결에 불교의 기초침을 얼마나 활용하십니까?  
① 상당히 활용하고 있다(22.9%) ② 대체로 활용하고 있다(48.6%) ③ 활용할 계획이다(22.9%) ④ 활용하지 않는다(5.7%)
-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계가 차등과 규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받고 있다(5.7%) ② 조금 받고 있다(54.3%) ③ 받고 있지 않다(28.6%) ④ 전혀 받고 있지 않다(0%) ⑤ 생각해 보지 않았다(11.4%)
- 불교의 사회적 위상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0%) ② 다소 높다(40%) ③ 보통이다(42.9%) ④ 다소 낮다(8.6%) ⑤ 매우 낮다(2.9%)
- 불교계에 비리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① 자체 정화를 통한 국민적 신뢰회복 ② 일대해 신이 필요하다 ③ 국민계도에 앞장 ④ 통일 조국에 주체적 역할 ⑤ 교계에 분정의 소명

50th 창간 50주년 1946-1996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독자를 우선할 수 없다는 정신- 광고를 대신하여 정보를 담은 1면을 시작으로 경향이 속속들이, 시원시원하게 바뀌었습니다. 1면부터 다른 신문, 독자가 먼저 평가한 경향- 경향을 보면 미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 京郷新聞

광고없는 1면, 독자를 위한 1면

- 하루의 기사가 한눈에 보이는-뉴스인덱스
- 시원한 10Cm 감상택 정치풍자-경향만평
- 1면에서 미리 읽는 요약뉴스-투데이포커스

새로운 신문의 혁신

- 국내 유일의 신세대, 신감각 정보-매거진X
- 한주일의 생활정보를 알차게 엮은-주말매거진
- 부모와 함께 보는 중학생학습지-TOP-10
- 가장 높은 적중도 대입수능예상문제-대입수능

京郷新聞社

뉴즈메이커 레이디경향 FIGARO T/Times

# 경향을 보면 미래가 열립니다

‘광고없는 1면’에서, 신세대 ‘매거진 X’까지-  
‘원하는 정보, 미래의 정보’가 경향에 있습니다.

## INFORMATION FOR PAPER